

양식장 고수온 피해 예방시설 공사 ‘지지부진’

도의회 농수축위원회, 취수관 사업 지연 질타
인허가 절차 원스톱 지원·염지하수 활용 주문

올해 제주 여름 바다가 평년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고수온 피해 예방 시설 공사가 행정절차상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위원회는 14일 제45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고수온 피해 예방 시설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올해도 고수온 특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가 집중되는 대정·한경 등 서부지역의 취수관 확충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취수관 확충사업은 양식장의 취

수관을 바다 쪽으로 100~200m 더 연장해 수심이 깊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해수를 양식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고수온이 본격화하는 7~8월에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김연정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고수온 피해 방지를 위한 취수관 연장사업 대상 5개소의 사업자 선정을 마쳤으나 해양환경 관련 용역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절차 문제로 추진이 늦어졌다”며 “사업 착수 시점 자체가 늦은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현재는 개별 양식업자가 직접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비상시 염지하수를 활용하거나 긴급 방류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주 기후·문화 체험교실
여름방학 초등학생 대상 운영

제주지방기상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주 기후·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체험교실은 이달 31일과 다음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지방기상청 W360 알파룸과 제주기상과학홍보관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기후변화가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주 기후 특성과 음식문화의 관계를 알아보는 강의와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된다.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네이버 예약 시스템(제주기상과학홍보관)을 통해 하면 된다. 회차별로 50명씩 총 10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초등학생 1명당 보호자 1명까지 함께 참가할 수 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기장 수확 14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의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기장을 수확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시권 생활소음·비산먼지 민원 적잖네

시, 상반기 721건 접수… 과태료 등 30건 행정처분
공사장 소음 대다수… 사업장 소음·비산먼지 등 순

제주시지역 공사장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나 비산먼지에 따른 민원이 하루평균 4건꼴로 적잖은 실정이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생활소음이나 비산먼지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721건에 달한다. 이 중 공사장 소음 민원이 466건(6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소음 민원 169건(23%), 비

산먼지 민원 86건(12%)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개조·4명으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 제주시 동·서를 기준으로 생활소음 민원 현장을 점검했다.

시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과 ‘대

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15개 업체에 대해 30건(조치명령 4건, 경고 7건, 고발 3건, 과태료 16건(106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업체 4개소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고, 생활소음 규제 기준 초과 공사장 4개소에 대해서는 소음저감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했다.

시는 지난해 생활소음 등 민원 접수한 1153건을 현장 지도점검해 72개소에 대해 9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자투리 땅을 녹색 쉼터로”… 학교숲 조성
제주시, 초·중·고교·특수학교 대상 신청 접수

제주시는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2027년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 학교를 오는 24일까지 신청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다. 다만 폐교 또는 휴교 예정이거나, 숲 조성 후 5년 이상 유지·관리가 어려운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 운동장 주변 자투리 공간이나 경계구역 등을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사업비 6000만원이 투입된다.

조성된 숲은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감각 경험과 환경친화적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살아있는 생태학습

공간으로 활용되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녹색 쉼터로 개방된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제주시 공원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말 대상 학교가 최종 선정된다.

앞서 시는 올해 3월에 제주서중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해 후박나무 등 수목 15종·1411그루와 수호초 등 초화류 5종·1100본을 식재했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생들에게는 살아있는 생태학습의 공간이 되고, 지역 주민에게는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지속적으로 도심 속 생활권 녹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18년 만에 교육장 공모 ‘없던 일로’

제주도교육청 서류 접수 결과 지원자 1명 그쳐
“재공모 어려워”… 기존처럼 교육감이 임명키로

제주도교육청이 18년 만에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제로 선발하기로 했지만 지원자가 1명에 그치면서 공모 절차가 중단됐다. 도교육청은 시기상 재공모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기존대로 오는 9월 인사를 통해 교육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에 따른 서류·심층 면접 평가가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하루 전인 지난 13일까지 약 일주일간 진행된 서류 접수 결과, 지원자는 1명뿐이었다.

도교육청은 남은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교육장 공모제 추진 계획’에 따른 결정이다. 이 계획에는 ‘지원자가 1인 이하일 경우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18년 만에 부활을 예고했던 교육장 공모는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교장, 교육전문직원 등 지원 대상의 응모가 저조했던 데에는 현장 교원들의 부담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오랜 기간 공모제가 시행되지 않았던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거론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 출범한 고의숙 교육감 체제에서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현장 중심 교육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현시점에선 재공모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은 추가 공모 없이 오는 9월 1일자 교원 정기 인사를 통해 교육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교장에 대한 신규·중임 임용을 교육부에 제청하는 절차가 시기적으로 맞물린 탓이다. 이로 인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기존대로 학교장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거나 본청 과장급 교육전문직원이 승진하며 발령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교육감의 뜻이 있다”며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살펴 향후에 지속적으로 공모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 .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경
CONGRATULATIONS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 성 곤

국회의원(서귀포시)



김 성 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 의 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성산읍)



양 홍 식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성산읍이장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성산읍위원회

성산읍주민자치회
대한노인회성산읍분회

성 산 읍 체 육 회
성산읍연합청년회

성산일출축제위원회
새마을지도자성산읍협의회

성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회
성산읍새마을부녀회